로컬플러스

군산시 비응항 등대주변 전망대 활기 넘치는 아트거리 조성

군산시 비응항 등대주변 전망대 경관이 활기 넘치는 아트거리로 재탄생했다.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의 관문인 비응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트렌드한 캐릭터를 구성, 우중충한 등대주변을 다시 찾고 싶은 키덜트 문화존 갤러리로 변화시켰다. 이와 함께 비응항 상인번영회(회장 윤진영)는 '바가지 상혼 근절지정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비응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상인번영회는 관광객에게 일정금액 할인행사와 바가지요금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배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과거 이미지 탈피를 위해 상인 모두가 앞장서고 있다.

김장원 항만물류과장은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거리예술 공간을 조성하게 됐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새롭게 변화된 비응항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간직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중앙지구대 모현동 합동순찰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상대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대국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근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및 상설중대원등 30여명과 합동으로 모현동 일대를 합동순찰하고 방범진단을 병행 실시했다.

이번 집중순찰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범죄취약요소를 개선하여 면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날 중앙지구대장은 협력단체 등과 함께 모현동 소재 제일아파트-원여고-고현초교-명일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주택가, 공동화장실, 소공원,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치고, 더불어 현장에서 취약원인에 대한 분석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도 병행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서, 보행자 보호 교통안전시설 개선·점검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교통관련 유관기관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대책 수립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373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15명, 중상 145명, 경상 242명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망 8명 부상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일요일 5명, 화요일, 목요일 각 3명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 점검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13건 발생한 신설사거리에서 나운사거리 구간 등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16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군산경찰은 이번 점검 자료를 기반으로 군산시 등과 협의해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17년도 예산 편성 시 교통사고 예방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집중 단속

군산시는 최근 상가 밀집지역 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 뽑기)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1일까지를 1차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임기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 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게임기 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한전 26센터 전기공급 중단

8개월간 1억 2,000만원 전기요금 체납 내일부터…피해 입주민 강력 반발

한전과 입주업체간 갈등에 애꿎은 입주민들이 단전 피해를 보게 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8개월째 전기요금을 체납한 군산지역 최고층 건물인 26센터에 대한 전기 공급이 오는 15일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이어서 입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전 군산지사는 "26센터의 관리주체가 8개월간 체납해온 전기요금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15일 오전 10시부터 건물에 전기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시 나운동에 위치한 26센터는 총 478세대 가운데 수도권 업체인 ㈜벨라지움이 49%(211개)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농협(1곳), 상가(12곳), 일반주민 오피스텔(120세대)가 입주해 있다. 이중 26센터는 8개월분 총 1억2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요금 납부가 안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26센터 측에 15일부터 전면 단전를 통보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체납된 전기료를 ㈜벨라지움 측이 체납한 것인데, 건물 전체를 단전할 경우 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나머지 세대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현재 26센터는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입주민들이 전기료를 관리사무소측에 납부하면 관리소측이 한전에 일괄 납부토록 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입주자들은 전기료를 납부하고도, 단전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과 상업행위가 불가능할 처지에 처했다.

더욱이 단전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는 등 입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으나 한전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김모 씨는 "단전에 따른 피해와 불편은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주민 생존권과 안전을 무시한 한전의 일방적인 단전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은 체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단전이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중재에 나서 입주자들이 단전에 대비토록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며 "단전이 장기화할 경우 세대별로 전기공급을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내선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지난 한해 익산소방서 구조활동 2,998건 중 벌집제거 출동은 891건으로 전체 출동대비 29.7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동으로 집계되었다.

익산소방서, 여름철 말벌 주의 당부

이달들어 벌집제거 41건 출동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급증

익산소방서 는 본격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덥고 습한 날씨로 말벌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 한여름으로 벌집제거 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한해 익산소방서 구조활동 2,998건 중 벌집제거 출동은 891건으로 전체 출동대비 29.7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동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상승으로 인해 벌의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7, 8월 폭염과 습한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산시 관내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금년 6월중 41건으로 이는 작년 6월 16건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고, 7월부터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말벌은 공격성과 독성이 매우 강하고 장수말벌의 경우에는 한번에 쏘는 독의 양이 일반벌의 200배에 달하는데다 계속해서 침을 이용해 독을 주입할 수 있어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말벌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접근하지 않는게 최우선이며, 산행이나 야외에서 활동시에는 향수나 스프레이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자극성 물질과 밝은색 계통의 옷을 피하는게 좋다

강원석 익산소방서장은 "특히 말벌은 공격성이 강하므로 노약자나 어린이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벌집을 발견하면 제거하려 하지 말고 119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보이스피싱 예방 기여 새마을금고 여직원 감사장 수여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최근 북부시장새마을금고에서 중앙지구대장이 직접 방문하여 경찰관과 적극 협조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새마을금고 김모 직원에게 '익산경찰서장 감사장'을 전수했다.

북부시장새마을금고에 방문한 노부부가 현금 4,700만원을 인출해 달라 의뢰하자, 이에 창구 여직원이 불안한 표정의 노부부가 큰돈을 뽑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피해자를 유심히 살펴보니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급하게 연락하는 것을 보고 전화사기임을 확신했다.

이에 얼마전 중앙지구대에서 전화사기 예방을 위해 의심이 되는 경우 무조건 지구대로 신고하라고 말한것이 떠올라 피해자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설명하고 바로 중앙지구대로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중앙지구대 경찰관 경위 취충언, 경사 진수환은 신고를 받고 출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위를 확인,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거주지로 함께 동행,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보이스피싱 수법 및 예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범인에게 이미 알려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비밀번호도 변경해 주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조치했다.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최근 북부시장새마을금고에서 중앙지구대장이 직접 방문하여 경찰관과 적극 협조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새마을금고 김모 직원에게 '익산경찰서장 감사장'을 전수했다.

한편,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평소 지구대 경찰관들이 은행을 방문해 은행직원들에게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신고하라는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 신속히 범죄를 감지하고 신고해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황궁쟁반짜장 홀몸 어르신 돕기

조상호 대표 9년째 이웃사랑 행보

익산 마동에 소재한 황궁쟁반짜장(대표 조상호)은 13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봉사활동으로 종일 훈훈한 시간을 만들었다.

황궁쟁반짜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짜장면 봉사는 매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상호 대표의 꾸준한 이웃사랑 행보는 벌써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어린 시절 가난으로 어렵게 생활했던 조상호 대표는 생계를 위해 중화요리를 배우게 되었으며, 짜장면 봉사는 10년 전 우연히 사랑의 열매에서 추진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배달을 하게 된 날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해마다 추진하는 봉사활동이지만 조상호 대표의 봉사활동은 다양하다. 짜장면 무료 제공, 짜장면을 2천원에 제공하는 짜장면데이를 통한 수익금 기부, 사회복지시설에 매달 짜장면 배달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봉사하는 삶이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또한 반죽부터 배달까지 직접 참여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라 봉사활동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이웃을 돕는다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누군가는 음식을 나누는 일이 영혼을 나누는 일이라고도 한다. 조상호 대표의 이웃사랑은 소박하기 그지없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 그냥 기분이 좋다. 봉사활동을 매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칭찬이나 표창장이 주는 뿌듯함보다 나누면서 행복한 마음이 봉사활동을 멈출 수 없게 한다."며 본인의 뜻에 기꺼이 지지해 주는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중문과 졸업생 민지수 씨 중국 상해시 지원 전액 장학생 선발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졸업생 민지수(25 사진 2013년 졸업) 씨가 중국 상해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2014년 중국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으로 선발돼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한·중 동시통역 석사과정을 마친 민지수 씨는 최근 상해복단대학 동시통역 박사과정 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졸업까지 전액장학금과 숙식 및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장학혜택이 주어졌다. 중국 정부초청 장학생은 한국과 중국 교육부 간에 체결한 '한·중 교육교류약정'을 근거로 양국 정부가 상호 우수한 인재를 초청해 대학원 학위과정 수학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 민지수 씨는 2014년 호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석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2012년 중국어 프리젠테이션대회 금상을 수상한 민지수 씨는 원광대 학부과정을 1년 조기 졸업하고, 2012년 사단법인 미래숲에서 진행한 중국어 에세이 대회 우수상과 같은 해 10월 한중문화청소년협회와 중국 공청단 북경시위원회가 주관한 한중수교 20주년 행사 한국대표 선발, 2014년 한중 청년 마케팅 아이디어 대회 최고상 등 학업과 함께 활발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특히 중국 유학생활 중에도 지난 5월 북경에서 열린 2016 미스코리아 중국 선발대회에 참가해 미에 당선돼 오는 7월 서울서 개최되는 2016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다.

민지수 씨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중국에서 보낸 유학경험을 살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 중국의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배워 개인적인 역량 강화와 함께 양국이 상호 발전하는 문화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임피면 청보리밭 무예산 행사 성공적 마무리

군산시 임피면의 청보리밭이 지난 한달 간 관광객에게 큰 추억을 선물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임피면(면장 전종신)은 지난달 관내 유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해충서식에 따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4,800㎡에 청보리 밭을 조성했다.

청보리 밭은 보리밭 사잇길로 들어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도록 미로를 조성하고, 허수아비와 바람개비, 하트존과 포토존을 설치해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조성했다.

특히 바람개비 등 일부 시설물은 타 지역 축제장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을 기증 받았고, 액자틀 등 포토존은 직접 제작·설치하는 등 한 달간의 행사를 무예산 사업으로 마무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남영 주민자치위원장은 "예산낭비로 얼룩진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하고 인력동원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마무리한 행정력이 돋보인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찾아오는 임피, 돌아오는 고향 만들기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북한이탈 청소년 문화탐방 행사

익산경찰서 에서는 익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여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탈북 가정 청소년들에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주어 가족과 함께 문화행사를 갖고 함께 즐기는 문화를 펼쳐 외로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같이 했다.

익산서는 지난 11일 임실군 치즈마을에서 익산지역 탈북민 청소년 가족들과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리에 임실 치즈마을 문화탐방 행사를 갖고 낯설은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훈훈한 정을 전달하여 주변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익산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청소년들이 학교폭력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문화탐방 및 가족결연행사등을 추진하여 기념품증정과 선물등을 전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약속했다.

북한이탈주민 한모(38)씨는 평소 신변보호관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으로 고마워했는데 외로운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행사를 추진하여 모처럼 자연과 함께 즐기고 마음까지 훈훈하여 "엄마 소도 보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에 부러울게 없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동민 서장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은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 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